

고양 킨텍스 '2015 서울 모터쇼' 가 보니 ...

친환경차·차세대 경차... 자동차 미래 한눈에

축구장 15배 크기 전시장
32개 업체서 370대 전시
기아차 신형 'K5' 첫 공개
獨·日 등 수입차 대거 출품

“자동차 미래 기술 한눈에 보세요.”
“2015 서울모터쇼”가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의 축제에 돌입했다. 올해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라는 주제로, 축구장 15배 크기에 달하는 10만2431㎡의 전시장에 총 32개 업체가 370대를 출품한다. 세계에서 처음 공개되는 차종은 7개이며 아시아와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모델은 9개와 41개이다. 올 한해 국내에 나올 신차를 미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 고연비, 신기술, 친환경 자동차들도 만날 수 있다.

◇기아차 신형 K5 세계 최초 공개=기아자동차는 총 36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31대의 자동차를 전시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차종은 뉴욕국제오토쇼와 서울모터쇼에서 동시에 출품되는 신형 'K5'이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외관만 공개된다. 2010년 출시 뒤 기아차가 5년 만에 선보이는 K5 후속 모델이다. 기존 모델의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하면서도 간결하고, 세련된 면 처리와 풍부한 부피감을 더해 한층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기아차는 콘셉트카 'KND-9'도 처음 공개한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신형 K5는 완성도 높게 진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드라이빙 스타일에 최적화된 폭넓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춘 모델로, 국내외 중형 시장에 다시 한 번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확신한다”며 “신형 K5”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아차는 이외에도 울버린 캐러터 튜닝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5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기아차가 신형 'K5'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차 제공)

카인 기아 X-가, 여행용 차량인 '레이 트래블러 팩' 등 쇼카(Show Car)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현대차는 5000㎡ 규모의 승용차 전시관과 1500㎡의 상용차 전시관을 마련해 각각 30대와 12대의 승용차 및 상용차를 전시해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독일·일본 등 수입차 총출동=국내 수입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업체들은 모터쇼를 통해 고객층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값비싼 고성능 모델과 SUV가 대거 출품되는 것이 특징이다.

벤틀리는 전 세계 300대 한정 생산돼 한

국 판매량이 6대로 책정된 희귀 모델인 신형 '컨티넨탈 GT3-R'과 '플라잉스피드 V8', '물산' 등 3가지 모델을 출품한다. 이탈리아 슈퍼카 업체 마세라티는 프리미엄 콘셉트카 '알피에리'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포르세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911 타르가 4 GT'S'를 필두로 '카이맨 GT'S', '박스터 GT'S', '마칸 터보' 등 전체 라인업을 전시한다.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빅3'도 다양한 신차를 공개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T' 등을 국내 첫선을 보인다. BMW는 '뉴 6시리즈 그란 쿠페'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8'을 국내 처음으로 공개한다. 아우디는 주력 차종인 중형 세단 A6의 부분변경 모

델 '뉴 아우디 A6'를 출품한다.

◇가족 위한 볼거리·즐거거리 풍성=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튜닝 및 자동차생활문화관'에서 관람객들은 친환경차 시승과 자동차안전운전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친환경차 시승 체험에는 쏘울 EV, 스파크 EV, SM3 EV, 프리우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피스 EV 등 다섯 종류의 친환경차 7대가 배치된다. 현장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시승할 수 있으며 전문 운전자 옆에 탑승해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하나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시승할 기회도 제공된다. 킨텍스 전시장 주위를 차량 2대가 주행하면서 이 시스템을 시연해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9.07 (+0.62) 금리 (국고채 3년) 1.72%
- ▲ 코스닥 650.57 (+0.34) ▼ 환율 (USD) 1095.50원 (-6.90)

한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6년 연속 '최고'

한국전력(사장 조완익)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17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친절 및 편리성, 품질, 전반적 만족도,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판매등급·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9개 공공기관 중 1위로 S등급을 받았으며, 199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시작된 이후 16년간 최고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한전이 유일하다.

한전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과 우수한 전기품질을 바탕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반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은 이와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공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열화상 장비와 소형 무인비행기 등 최첨단 IT 장비를 활용하여 전국의 방대한 전력설비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설비를 무상으로 점검함으로써 KPMG 전기품질 평가 세계 1위 및 World Bank 전기공급분야 평가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

농어촌공사, 베트남·캄보디아와 가뭄관리사업 계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 달 31일 베트남과 관계농업개선사업, 캄보디아와 홍수·가뭄위험관리사업에 대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베트남 중·북부 7개성, 8만300ha 지역에 ▲시설물 지리정보·관측시스템 설치 등 물 관리 선진화 ▲기후대처농업(CAS) 기술지원 ▲사업관리·평가 등 총 330만 달

리 규모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이달 중 착수에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메콩강 지역의 위험관리사업도 이달 중 진행된다. 이 사업은 메콩강 하류지역의 홍수와 가뭄을 대비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90만달러로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비원리금 수익률 4.47% 인기



이상 장기 수익률도 양호했다. KB국민은행 측은 “KB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금액은 지난 12월 말 기준 3조 2504억원에 이른다”며 “지난 2007년 이후 8년 연속 적립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차 안심전환대출 사흘간 6조원 신청

1차때의 절반 수준 머물러
오늘까지 접수엔 대출 가능

이번 주부터 재판매달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물량이 3일간 6조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를 따라 2차 신청자 모두가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조8833억원(3만2429건)으로 집계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시 사흘째까지 누적 신청액은 6조662억원(6만 8762건)을 기록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 2조2000억원, 이튿날인 1일 약 1조원이 신청된 바 있다. 주춤했던 신청액이 사흘째 다시 크게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1차 판매와 비교하면 줄어든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 1차 판매 당시에는 출시 첫날 4조1549억원, 둘째날 4조454억원, 셋째날 5조4162억원이 각각

승인된 바 있다. 사흘간 하루 평균 2조원으로, 지난주 1차 접수 때 하루 평균 신청액인 4조~6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2차 마감일인 3일까지 신청한 사람은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대출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출 한도가 20만원인만큼 2일과 3일 7조원씩 신청이 들어와도 한도 이내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청 건수가 1차 대비 절반 수준 이하로 내려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 상황이 이어진다

면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모두가 대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후속 상품은 당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면서 “자판기처럼 딱딱 후속 대책이 나오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안심전환대출을 은행 외 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하는 일부 의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내 최고의 권위와 규정을 자랑하는

제 56회 소년한국일보 미술대회

2015. 4. 26(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신청기간
2015. 3. 16(월) ~ 4. 18(토)

참가대상
전국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주최| 소년한국일보
|주관| 소년한국일보 호남지사

참가신청, 문의전화 062.526.8220
<http://kids.hankooki.com>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과 선정은 주최측이 결정합니다.
※ 대회 당일 우천시 공모전으로 전환함.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600g 120,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환 1kg 360,000원
- 600g 80,000원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